



류성룡 역 김상중

국난 극복의 '혁신 리더' 징비록 류성룡이 온다

‘조선 최고의 재상’ 류성룡이 쓴 임란때 조정이야기 ‘징비록’ KBS 14일 첫 방송

소설 등 관련 책도 잇따라 출간

“분명 나라에 변고가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장차 후학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최근에 이 대사를 연기한 게 기억에 남는다. 드라마를 통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에 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KBS 대하사극 ‘징비록’에서 류성룡역을 맡은 배우 김상중이 최근 열린 드라마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던진 말은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정확히 드러낸다.

정도전에 이어 이번에는 류성룡이다. 지난해 방영됐던 KBS ‘정도전’은 리더의 역할과 촌철살인 대사 등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는 14일(KBS 1TV·밤 9시40분) 첫방송을 앞둔 ‘징비록’은 또 한명의 정치 리더 류성룡을 전면 에 내세운다.

‘징비록’은 ‘하늘이 내린 재상’, ‘조선 500년 최고의 재상’으로 꼽히는 서예 류성룡(1542~1607)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징비록(懲毖錄)’은 영의정과 도체찰사를 겸직하며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었던 류성룡이 난을 겪고 나서 이를 돌아보며 그 전말을 7년(1542~1607)에 걸쳐 기록한 책이다. 대한민국 국보 제132호인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원인과 경과, 자신의 잘못과 조정의 실책 등을 담고 있으며 제목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가올 어려움

을 대비하자’는 의미다.

제작진은 류성룡을 국난극복을 위한 ‘혁신의 리더’로 설정했다. 드라마는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1598년 이순신이 전사한 노량해전까지의 시기에 조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임진왜란 직전 조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읍현감에서 7계단 올라간 전라좌수사로 이순신을 천거한 류성룡의 개혁의지, 고뇌와 아픔, 선조와 조정 대신들의 정치적 갈등 등이 그려질 예정이다.

“백성이 근본”이라고 주장하는 류성룡과 “정치는 세력”이라는 이산해, “왕이 곧 나라다”라며 선조를 보필하는 윤두수 등 정치관이 다른 대신 3인방이 극을 움직인다.

윤두수 역은 목사로 활동하며 브라운관을 떠난 뒤 10년만에 컴백한 임동진이, 류성룡을 돕는 이산해 역은 이재용이 맡았다. 선조역은 김태우다. 대본은 ‘다모’, ‘주몽’, ‘계백’ 등을 집필한 정형수 작기와

KBS 다큐멘터리 ‘역사저널 그날’의 각본가 정지연가 함께 쓴다.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관련 책들도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제작 소식이 처음 전해진 이후 다양한 편역본들이 선을 보였고,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는 소설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편역본으로는 ‘징비록 : 부끄러운 역사를 이겨낸 위대한 기록’(을유문화사) ‘인문만화 징비록 : 임진왜란 7년, 눈물과 회한으로 쓴 반성의 기록’(서해문집) ‘징비록 : 서예 류성룡 원저, 임진왜란 기록’(형설출판사) ‘징비록 : 대한민국 국보 132호, 반성을 위한 전쟁의 기록’(돋움새김) 등이 출간됐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겸임교수 박기현 씨가 펴낸 ‘류성룡의 징비’(시루)도 눈길을 끈다. 안동 하회마을을 직접 방문해 후손들로부터 기록된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내용도 꼼꼼히 들은 저자는 류성룡을 명쾌하고 유용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 ‘전시 수상’으로 본다.

소설도 눈길을 끈다. ‘소설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재운이 쓴 ‘소설 징비록 : 전시 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7년의 기록’(책이있는마을), 역사 픽션 소설을 전문적으로 쓰는 이수광이 쓴 ‘소설 징비록’(북오션) 등이 눈에 띈다.

그밖에 이반영의 ‘소설 징비록’(나남)은 지난 2012년 발간한 ‘왜란’을 수정한 작품이며 이한솔의 ‘소설 징비록, 류성룡의 충과 애민의 고뇌’(푸름), 박경남의 ‘소설 징비록’(북향)도 나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선조 역 김태우



亞문화전당 대학생기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2015년 활동할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팀, 편집팀, 해외팀으로 나뉜다. 국내팀은 글·사진·영상 분야를 선발하며 문화전당 관련 현장 취재와 인물 인터뷰를 통해 콘텐츠 제작 및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편집팀은 온라인 블로그 게시물 디자인 편집을 맡는다. 해외팀은 거주지 문화 소식을 국내에 전하며 아시아문화전당 소식을 번역한 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책임진다.

지원자격은 국내팀의 경우 광주에서 열리는 회의 및 행사에 취재가 가능해야 한다. 접수는 23일까지 이메일(j0101@korea.kr)로만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27일이다.

합격자들은 3월 초 광주에서 열리는 1박2일 일정에 전원 참석해야 하며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각예술작가 김엽 오픈스튜디오 진행

바림 고시원스튜디오 14일

바림(BARIM) 고시원스튜디오는 14일 오후 3~7시 바림 스튜디오에서 ‘먼지의 기억’을 주제로 시각예술작가 김엽씨의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김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바림 레지던시에 참여했으며, 자연과 리사이클을 중심으로한 조형작품과 퍼포먼스, 워크샵 등을 열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는 최근 진행한 ‘의미 있는 100 : Bag Project’를 포함해 그동안 레지던시 성과물들을 발표회 형식으로 보여준다.

‘의미 있는 100 : Bag Project’는 김씨가 폐현수막을 이용해 만든 가방을 행인들의 종이나 비닐 가방과 바꾸는 퍼포먼스 형식의 작품이다. 김씨는 바림 앞 골목에 재봉틀을 설치한 후 하루에 10개의 가방을 만들어 행인들의 가방과 교환했다. 문의 062-228-9876. /김경인기자 kki@



광주시립무용단·국극단 예술감독 선임 절차 시작

10·11일 전형위 개최

광주시립무용단과 국극단 신임예술감독 선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광주문화재단은 10일 광주시립국극단, 11일 광주시립무용단 신임 예술감독 전형위원회를 개최한다. 전형위원회는 광주시 시립예술단 단장인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의회 추천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서류 심사를 거쳐 합격자는 오는 13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마감 결과 국극단의 경우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문예술인 11명이 지원했으며 무용단은 8명이 원서를 제출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민심서·성호전집 등 고전번역서 34종 인터넷 공개

한국고전번역원은 2014년도 고전번역서(문집)·역사문헌 번역서·고전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고전번역서 34종 88책을 인터넷상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웹으로 제공되는 고전번역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1~11책)를 비롯해 이익의 ‘성호전집’ 8책, 김낙행의 시문집 ‘구사당집’ 1책 등의 역주본이다. 이들 문집은 선비, 학자, 관료 등이 쓴 시, 산문,

편지, 정사(政事)에 관한 의견, 타인의 저서에 써준 서문이나 발문, 죽은 사람의 행장, 여행기 등 다양한 글을 망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9일~영조 3년 2월10일(27~55책) 등 역사문헌 번역서 2종 55책, 사직서의례 등 고전원문 2종 2책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